



一般財団法人 International Culture and
Education Charity Foundation
国際文教慈善基金会

일반재단법인 국제문교자선기금회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사랑과 감사의 실천



(재)국제문교자선기금회 소개

(재)국제문교자선기금회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정신 아래 즉, ‘**사람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자선 재단입니다.

기금회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 다양한 **혁신적 활동**을 전개하며, **자선 사업과 공공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국제 자원봉사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한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자선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여 전 세계가 더욱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회장
니노유 사토루(二之湯智)



창립 이사장
타바타 모토코(田畑素子)

자선·문화 활동

국제 자선 활동



설립 이후, 저희는 대만, 인도, 네 팔 등 여러 지역에서 식량, 생필품, 자금, 방역용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빈곤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소외된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자선 활동



일본 국내에서는 내각부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식료품과 방역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돕고,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 활동



저희는 스포츠 대회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대만에서는 「대만 33관음 순례」 설립을 추진 중이며, 각국에서 「33관음 순례법회」 개최 등 종교 및 문화 활동의 발전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효도 문화의 확산

효는 만민 행복의 근본입니다

우에쿠사학원대학교 명예교수 노구치 요시히로



효도의 본질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치거나 병들지 않으며, 싸움이나 잘못된 행동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면, 부모님은 언제나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곧 진정한 효도이며, 그런 삶을 사는 자 녀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효가 널리 실천되는 사회라면, 이 세상은 분명 지상낙원이 될 것입니다.

효심이 행복을 부릅니다

도쿄중화학교 부교장 유추미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효경』에는 “복과 부는 모두 효에서 온다”라고 전해집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자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효를 바탕으로 선을 실천하며 덕을 쌓아, 온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재)국제문교자선기금회 이사 이귀사



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도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제문교자선기금회는 “백 가지 선 중 효가 으뜸”이라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 활력 회복 등 사회적 과제에서 효도의 정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효심의 번영으로 세상을 밝히자”라는 슬로건 아래, 효도 에세이 공모전, 수상 작품집 출판, 효도 장학금 지원, 효도 문화 강연회, 효도 문화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효도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풀뿌리 운동으로서 사회 전반에 밝음과 희망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

효도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목표

훌륭한 인격 -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

“효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라 불립니다. 효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함양하고, 효의 정신을 기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 가화만사성 -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인격 형성의 기초이며,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아가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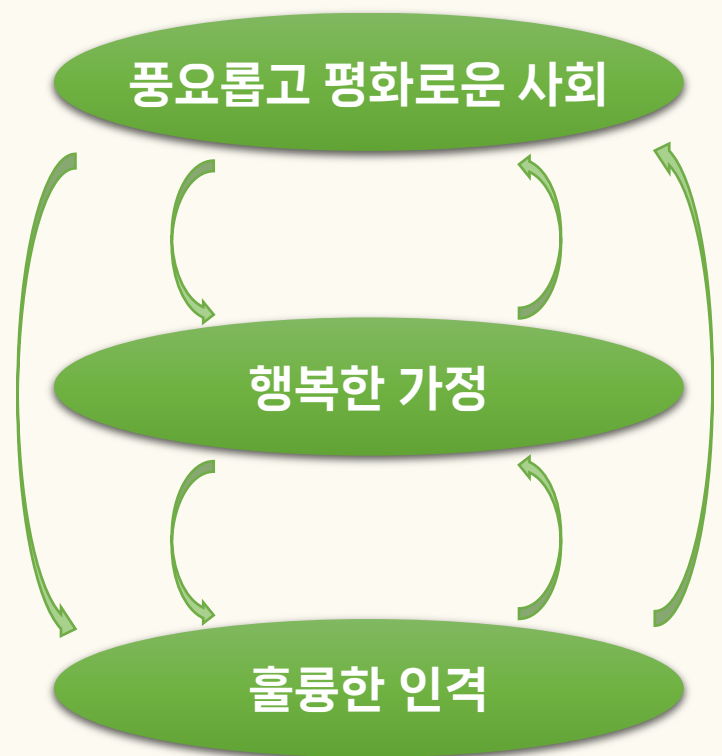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

진정한 평화는 선한 마음을 지닌 개인과 행복한 가정이 모여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 문제의 뿌리는 결국 개인과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가정은 사회를 위해, 사회는 다시 가정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저희는 효도 문화를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도 문화 확산을 위한 풀뿌리 운동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회가 평화롭지 않다면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효도 문화 보급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일본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시켜 개인, 가정, 사회가 함께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취지

효 문화의 쇠퇴는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 붕괴, 따돌림, 자살 증가, 양극화 확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나, 도덕적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간의 감사와 상호 협력의 정신이 희미해진 것이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된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교육 속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적어, 앞으로의 사회를 위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효 문화의 진흥으로 세상에 빛을

원래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은 '효도(孝道)'라 하여 동양 전통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이를 다룬 전문 경전인 『효경(孝經)』이 편찬될 정도로 일본을 비롯한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매우 중시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소중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춘 개인, 행복한 가정, 그리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아 효 문화 진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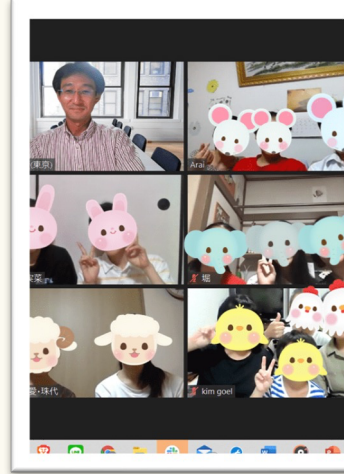
활동 내용

효도 장학금



효도 작문 콩쿠르의 수상작 선발에 맞추어 장학금 제도를 창설하여, 콩쿠르에서 입상한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효도를 실천하며 매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활동을 통해 효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효도 온라인 교류회



효도 장학생과 그 가족, 유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온라인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류회에서는 특별강사의 강연 후, 참가자들이 효도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참가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도 작문 콩쿠르



일본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효도 작문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8편, 2022년에는 368편의 응모가 있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효도 작문 선집 발간



효도 작문 콩쿠르의 수상작을 엄선하여 「선집」 형태로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효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자 2023년 1월에 효도 작문 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효도 작문 콩쿠르/장학금 수상자 현황

제1회(2021)

최우수상 8명
(장학금: 월 지급, 총 12개월)
우수상 12명
(상금: 정해진 금액 지급)
가작 33명
(상금: 정해진 금액 지급)

제2회(2022)

최우수상 8명
(장학금: 월 지급, 총 12개월)
우수상 12명
(상금: 정해진 금액 지급)
가작 33명
(상금: 정해진 금액 지급)
스타트대시상 4명
(상금: 정해진 금액 지급)

제3회 (2023)

우수상 30명
(장학금: 월 지급, 총 12개월)
가작 100명
(상금: 정해진 금액 지급)
효도 대사 130명

제4회(2024)

우수상 33명
(장학금: 월 지급, 총 12개월)
장려상 100명
(상금: 정해진 금액 지급)
효도 대사 133명

효도 문화 국제 대회



효도 문화를 진흥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연례 행사를 개최합니다.

효도 강연회



정기적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 대담, 효도 서예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효도 서예회



유명 서예가를 초청하여 효도와 관련된 한자 휘호와 서예 강연을 함께 진행하는 서예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지부 대회



일본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별로 행사를 개최하여 효도 문화 확산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키친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 전문가를 초청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를 체험하며, 문화를 넘어 교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세대 가족 표창



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의 모범으로 표창합니다.

효도 자원봉사



정기적으로 효도 실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바와 도호쿠 재해 지역에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효도 음악회



전 세계 음악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곡을 통해 효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효도 장학금 수혜자의 이야기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었어요

효도 작문 콩쿠르 시상식에 어머니의 권유로 참석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본인은 응모하지 않았지만, 행사 이후 집에 돌아와 자발적으로 설 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변화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인 이 학생은 작문을 쓰면서부터 가족 간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더 자주 의식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초등학교 여학생은 부모님께 감사의 뜻으로 머그컵을 선물하고, 남은 금액은 우크라이나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지시도 아닌, 본인이 깊이 생각한 끝에 실천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해, 이제는 "부모님의 바람에 응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귀가하셔도 항상 웃는 얼굴로 "다녀오셨어요"라고 맞이해 주는 딸의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효도라고 하십니다.

효도에 대한 의식이 깊어졌어요

초등학교 여학생인 이 학생은 작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지난 1년간 부모님께 더 많은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직은 작은 일밖에 못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엔 더 많이 효도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습니다. 수상 이후 효도에 대한 의식이 확실히 깊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을 받든 안 받든 계속 작문을 해나가고 싶고, 더 많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인 이 학생은 평소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작문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말합니다.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안일은 돕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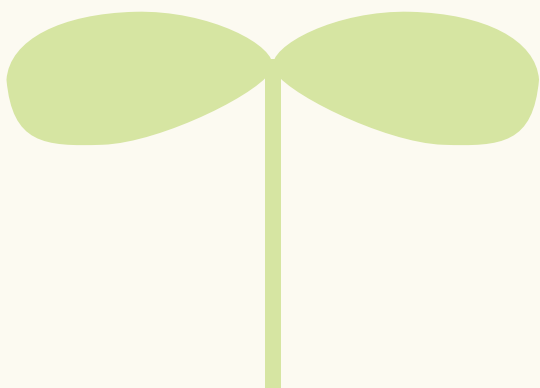
중학교 여학생인 이 학생은 효도 장학생이 되어 매달 열리는 온라인 교류회에 참가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나 장래의 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장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었고, 세상에는 정말 여러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전도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반장' 역할을 맡아 보살피는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올해도 다시 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글로 남길 수 있어 좋아요

고등학교 여학생인 이 학생은 매일 느끼는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랑해'라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겨우 글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상 후,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학교 남학생인 이 학생은 효도 작문 콩쿠르에서 수상한 이후 자신감을 얻고, 다양한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도에 대한 의식도 커져서, 부모님께 자주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 설립 현황



2025

제5회 효도문화 국제대회

in Japan

11.1 (sat)

장소: 아크로스 후쿠오카



제1부

제5회 효도문화 국제포럼

주제: 21세기에 왜 효도문화가 필요한가

일시: 11월 1일(토) 9:30 개장

시작: 10:00~12:00

장소: 아크로스 후쿠오카 국제회의장



제2부

제5회 효도문화 국제대회 in JAPAN

일시: 11월 1일(토) 13:30 개장

시작: 14:00~16:30

장소: 아크로스 후쿠오카 이벤트홀



접근



지하철 공항선/하코자키선
나카스카와바타역에서 도보 약 3분



지하철 공항선
텐진역에서 도보 약 3분



一般財団法人 International Culture and Education Charity Foundation
国際文教慈善基金会

www.icecf.or.jp



一般財団法人 International Culture and
Education Charity Foundation
国際文教慈善基金会

일반재단법인 국제문교자선기금회

〒605-0875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가네이초 413

E-mail: icecforg@gmail.com

URL: <https://www.ICECF.or.jp/>